

화장품

Jan 02, 2026

2025년 12월 당월/누계 화장품 수출 데이터 점검

Overweight

유지

2025년 12월 당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 점검

12월 전체 화장품 수출액은 \$888.8m (YoY 21%, MoM 16%) 시현. 지역별로 미국 \$137m (YoY 8%, MoM 11% [중량 기준 YoY 41%, MoM 10%]), 중국 \$127m (YoY -17%, MoM 20%), 홍콩 \$65m (YoY -3%, MoM 33%), 일본 \$75m (YoY 12%, MoM 6%), 폴란드 \$22m (YoY 69%, MoM -24%), 동남아 5국 \$107m (YoY 19%, MoM 23%), 유럽 5국 \$73m (YoY 87%, MoM 9%), 중동 5국 \$56m (YoY 86%, MoM 5%) 시현.

[기초 화장품] 전체 \$441.5m (YoY 25%, MoM 13%), 미국 \$64m (YoY 10%, MoM 7%), 중국 \$60m (YoY -19%, MoM 12%), 홍콩 \$46m (YoY 6%, MoM 37%), 일본 \$27m (YoY 11%, MoM 15%), 폴란드 \$17m (YoY 132%, MoM -24%), 동남아 5국 \$42m (YoY 8%, MoM 28%), 유럽 5국 \$42m (YoY 130%, MoM -1%), 중동 5국 \$25m (YoY 119%, MoM -15%) 시현.

[색조 화장품] 전체 \$135.1m (YoY 4%, MoM 19%), 미국 \$32m (YoY 0%, MoM 31%), 중국 \$18m (YoY -33%, MoM 35%), 홍콩 \$2.4m (YoY 8%, MoM 33%), 일본 \$28m (YoY 9%, MoM -1%), 폴란드 \$1.6m (YoY -17%, MoM -46%), 동남아 5국 \$15m (YoY 2%, MoM 27%), 유럽 5국 \$9.9m (YoY 15%, MoM 13%), 중동 5국 \$5.7m (YoY 77%, MoM -1%) 시현.

2025년 연간 화장품 수출 데이터 점검

2025년 전체 화장품 수출액은 \$9,437m (YoY 10%, 약 13.4조원)으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. 중국 제외 시 \$7,789m (YoY 22%) 시현. 지역별로 미국 \$1,751m (YoY 13%, 약 2.5조원), 중국 \$1,648m (YoY -24%, 약 2.3조원), 홍콩 \$603m (YoY 18%, 약 0.9조원), 일본 \$881m (YoY 5%, 약 1.2조원), 폴란드 \$246m (YoY 119%, 약 0.3조원), 동남아 5국 \$990m (YoY -1%, 약 1.4조원), 유럽 5국 \$732m (YoY 64%, 약 1.0조원), 중동 5국 \$468m (YoY 44%, 약 0.6조원) 시현. 기초 화장품은 \$4,761 (YoY 5%), 색조 화장품은 \$1,654 (YoY 13%)을 기록함.

국가별로 살펴보면, 올해 미국 수출 비중이 18.6% (YoY +0.5%p, 1위)을 기록하며, 처음으로 중국 (17.5%, 2위)을 추월. 3~5위 순위는 전년과 동일했으나, 주요국 중 아랍에미리트 (7위, ↑2계단), 폴란드 (9위, ↑4계단), 캐나다 (12위, ↑3계단), 호주 (14위, ↑2계단) 프랑스 (15위, ↑6계단) 상승이 유의미했음. 중동과 유럽 등 지역 확장이 다변화되는 모습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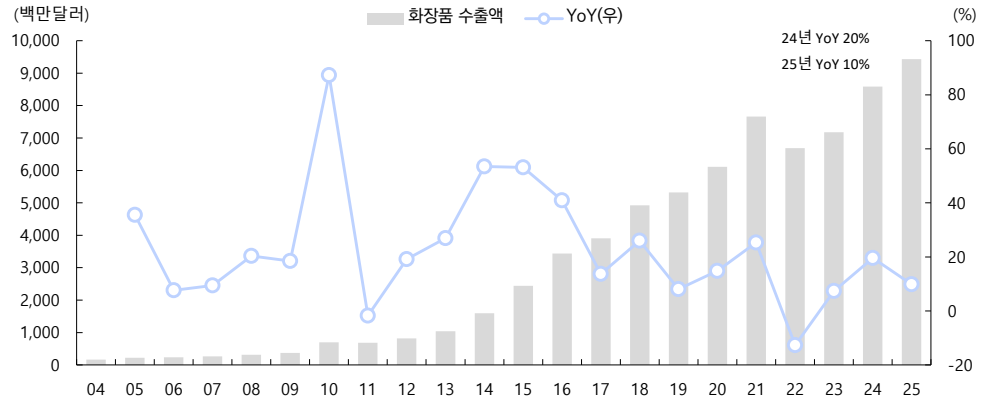
한편, 미국 25년 수출액은 YoY 13%에 그쳤지만, 중량 기준 YoY 18% 증가한 모습임. 특히 관세 부과 이후인 5월부터 ~12월 누계 기준 중량기준 YoY 26% 증가하며 긍정적인 실적 기록했음. 이는 미국 관세 부과 이후 수출 단가 조정 영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. 유럽 5국+중동 5국 비중도 12.8% (YoY 3.8%p)으로 존재감 확대되는 모습.



[음식료/화장품] 권우정
3771-9082,
20240006@iprovest.com

[도표 1] 전체 화장품 수출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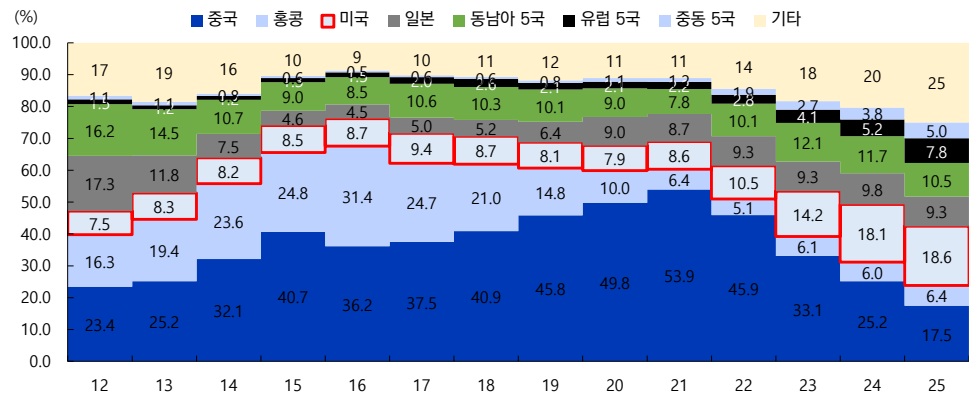
25년 전체 화장품
수출 YoY 10% 증가


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2] 전체 화장품 수출 중 국가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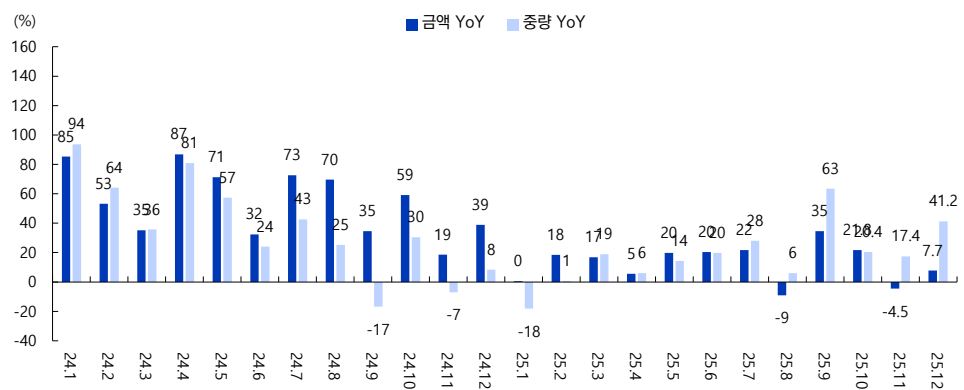
미국 비중 18.6%으로
최대 수출국 등극
유럽+중동 24년
9.0% → 25년 12.8%


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3] 미국향 화장품 월별 수출액 금액 기준 Vs. 중량 기준

관세 부과 이후 중량
기준 성장률이 금액 기
준 성장률 추월


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4] 화장품 수출 국가별 비중 순위 (24년 연간 Vs. 25년 연간)

순위	24년		25년		전년 대비 순위 증감
	국가	수출 비중%	국가	수출 비중%	
1	중국	25.1	미국	18.6	1 ↑
2	미국	18.0	중국	17.5	1 ↓
3	일본	9.8	일본	9.3	—
4	홍콩	6.0	홍콩	6.4	—
5	베트남	5.4	베트남	4.3	—
6	러시아 연방	3.8	러시아 연방	3.8	—
7	대만	2.5	아랍에미리트	2.8	2 ↑
8	태국	2.2	대만	2.8	1 ↓
9	아랍에미리트 연합	1.8	폴란드	2.6	4 ↑
10	영국	1.5	태국	2.2	2 ↓
11	인도네시아	1.4	영국	2.0	1 ↓
12	싱가포르	1.4	캐나다	1.6	3 ↑
13	폴란드	1.3	인도네시아	1.6	2 ↓
14	말레이시아	1.3	호주	1.5	2 ↑
15	캐나다	1.2	프랑스	1.2	6 ↑
16	호주	1.1	말레이시아	1.3	2 ↓
17	카자흐스탄	1.0	싱가포르	1.2	5 ↓
18	필리핀	0.9	카자흐스탄	1.1	1 ↓
19	네덜란드	0.9	네덜란드	1.1	—
20	키르기스스탄	0.9	필리핀	1.0	2 ↓
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/ 주: HS CODE 3304 기준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월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월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_2025.12.31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6.4%	2.9%	0.7%	0.0%

【업종 투자의견】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【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】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